

## 연봉제 신규교수부터 단계적 적용

### 전면 성과급제 아닌 부분적 도입 ... 교수회 반대 입장

본교가 시행여부를 두고 논란이 많았던 교수연봉제를 올해부터 단계적으로 실시한다. 시행대상은 2002학년도 1학기 신규 임용된 교원부터이며, 기존 임용 교원의 경우 지원하지 않으면 연봉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번에 본교에서 시행하는 연봉제는 기존급제인 호봉제와 유사한 '기본연봉'에 연구·교육업적 평가에 따른 '성과연봉'이 추가된 것을 주요 골자로 한다. 이는 일각에서 우려하던 철저한 성과급 위주의 연봉제가 아닌, 초기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현재 이러한 방식의 연봉제는 고려대 경희대

연세대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기본연봉은 기준급과 연구비로 구성된다. 처음 연봉제를 계약할 때 기준급은 계약당시 교수경력에 비례해 책정되고, 이후 매년 누적되면서 임금인상에 따라 늘어난다. 연구비는 전임강사, 조교수 등 교수직급에 따라 지급된다. 따라서 기본연봉은 매년 일정액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기존 호봉제와 다른 내용은 없다. 또한 기본연봉은 12개월로 분할해 매월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방식도 현행제도와 다르지 않다. 성과연봉은 교원업적평가에 따라 교수마다 차이가 있는 급여로 매년 8월 지급된다. 또한 매년 업적평가

에 따라 새롭게 책정되며, 성과급과 등급별 지급기준은 이후 총장이 별도로 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인사처의 한 관계자는 "업적평가 결과로 결정되는 성과연봉은 교수들의 연구 의욕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성과연봉의 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연봉제는 업적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의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교수회(회장=박종훈·윤리문화학)는 "온라인 강의 평가 등 교원업적평가의 객관성·공정성이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연봉제 시행은 무리"라며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송일호(경제

학) 교수회 총무는 "연봉제는 교수간 경쟁을 부추길 뿐 아니라 평가가 별도로 정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기획인사처의 한 관계자는 "업적평가 결과로 결정되는 성과연봉은 교수들의 연구 의욕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이라며 성과연봉의 효과를 강조했다. 또한 "연봉제는 업적평가 결과에 따른 우수교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의의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교원연봉제운영규정은 지난 6일 교무위원회에서 통과됐고, 법인이사회의 최종 승인만이 남아 있기 때문에 연봉제 실시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 학생회사업, 이제 거듭나야 할 때

### 명확한 규모 파악·투명한 재정 공개 필요

'새터사고 이면계약'이 공개된 후, 총학생회에 대한 학생들의 불신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불투명한 학생회 재정과 일부 집행부에 의해 사실은 불가능한 비민주적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비판 여론 가운데는 이번 사건이 총학생회가 거듭날 수 있는 기회라고 보는 시각도 있다. 때문에 본사 대학부는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닌 생산적인 '비판'을 위해 2회에 걸쳐 이면계약 체결과 조직 문제 뒤에 거러진 총학생회 운영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편집자

장이기 때문에, 매년 지원되는 교비의 규모는 일정하지 않다.  
총학생회가 학생들의 향상된 문화적 수준에 맞추느라 불가피하게 사업비를 상향 책정해도, 교비는 보통 예산과 비슷해 신청규모에 못 미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회비와 교비로 충당하지 못하는 비용은 총학생회 자체적으로 빚을 지며 사업을 추진하는 형편이다.  
또한 총학생회 사업의 문제는 사전에 참가인원 등 행사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과·학부 학생회부터 참가인원을 파악해 보고받지만, 행사 직전까지 몇 명의 인원이 참여하는지 알기는 어렵다.  
때문에 사업예산을 여유있게 책정하고, 결국 준비한 물품들은 남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면 지금의 적자운영은 줄어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이를 위해선 단위 학생회와의 긴밀한 연계가 전제돼야 할 것이다

- ① 학생회 사업 재정문제
- ② 의사결정구조의 문제

총학생회의 대중사업 중 재정규모가 큰 것으로 새내기 새로배움터(새터), 해오름식, 대동제 등을 꼽을 수 있다.  
이중 새터를 제외한 학생회 사업의 재정은 대부분 학생회비와 교비로 충당된다.  
등록금에 포함돼있는 학생회비는 1학기의 경우 등록금이 최종마감되는 4월경 총대의원회 예산분배소위원회를 통해 총학생회 등 중앙기구와 단과대 학생회에 지급된다. 그러나 학생회비만으로 재정충당이 어렵기 때문에 사업마다 별도로 학교측에서 교비를 지원받는다.  
그로 인해 총학생회는 학생회비를 제외한 나머지 재정을 명확히 책정하지 못한 상황에서 한 해 사업을 계획해야 하는 실정이다. 학교는 "학생회 자치사업은 원칙적으로 학생회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입

이 밖에 학생회 재정조달이 어려운 상황에서 집행부들의 장학금이나 사회에 진출한 선배들의 지원금이 사업재정에 충당되는 경우, 이런 자금은 감사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불투명한 자금운용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때문에 총학생회는 감사자료를 철저히 제출하는 등 기본적으로 재정이 투명하게 운영될 수 있는 실천들을 시행해야 할 것이며, 총대의원회와 논의 등을 통해 재정규모가 큰 사업에 총학생회 별도의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재정조달과 운용이 투명해질 수 있는 방안을 꾸준히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김도영 기자  
circus@dongguk.edu

### 직원인사 발령 퇴직·신규임용 15명

본교는 지난달 28일, 3월 1일자로 각각 직원 퇴직인사와 신규임용인사를 발령했다.  
퇴직인사는 △이병천(문화예술대학원 교학부) △윤장욱(중앙도서관 학술정보관리팀) △이대봉(사무처 총무팀) △마호석(사무처 총무팀) △고성국(사무처 시설관리팀)이며, 신규임용된 직원은 △김해덕 △김영민 △신지형 △조의성 △박종혁 △이창용 △김세주 △손세호 △김규현 △이수우 총 10명이다.

### 축구부 조 2위 예선통과 1승 1무로 24강 진출확정

축구부(감독=김승기)가 제50회 대통령배 축구대회에서 조 2위로 예선을 통과했다.  
대학·실업 총 44팀이 참가한 이번 대회에서 본교는 같은 조의 군정대에게 2:0으로 이기고, 경희대와는 1:1무승부를 기록했다. 이로써 축구부는 1위를 차지한 경희대와 함께 조 2위까지 진출하는 24강에 안착했다. 이와 관련해 감독은 "작년 4강 진출 경험이 있는 대회인 만큼 올해도 좋은 성적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늘 만큼은 ... '3·8일 여성의 날 투쟁대회'가 지난 8일 대학로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참가자들은 여성을 상징하는 보리색 풍선을 손에 들고 어느 때보다 소리를 높여 구호를 외쳤다.  
염태극 기자  
snail11@dongguk.edu

## 단과대 학생회 보궐선거 내일(12일)부터 3일간 후보등록

2002년 단과대 학생회 미선출 단위의 보궐선거가 오는 26일부터 3일간 실시된다.  
지난 11월 선거가 무산된 단위는 △대의원장=문과대 이과대 생

자대 정산대 예술대 △학생회장=이과대 법대 공대 정산대이며, 입후보 자격은 학생회칙 전문에 위배되는 목적을 갖지 않은 3학년 이상의 재학생이다.  
후보자 등록기간은 내일(12일)부터 14일까지이며, 후보자는 18일부터 25일까지 선거 운동을 하게 된다.  
입후보를 희망하는 자는 △등록신청서 △회칙과 시행령 준수 서약서 △소견서 △추천서 △명함판 사진 3매를 총대의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 보리소

오태양이 던진 화두

UN인권위원회는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는 사상·양심·종교적 자유에 근거한 기본적인 인권의 하나"임을 지난 98년 77호 결의안을 통해 확인했다. 그리고 2000년 34호 결의안에서 "각 국은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에 관한 현행 법률과 관행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우리나라는 이 결의안에 동의함으로써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권 사항임을 국제적으로 이미 약속한 상태다. 그러나 정부측의 조치는 매우 소극적인 채 오늘에 이르고 있다.

우리에게 이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한 때는 2년 전 대만의 대체복무제 도입 소식이 전해지면서부터이다. 이후 '여호와의 증인'의 병역거부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되고, 지속적인 언론보도, 워크샵, 토론회 등이 이어지면서 논의는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다.  
마침내 12월 17일 평화운동가이자 불교신자인 오태양씨의 병역거부선언으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확보하기 위한 운동은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다. 1천600여 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이 감옥에 있어도 이를 인권의 차원에서 접근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정종교의 잘못된 교리에 따른 반국가적인 범죄로만 몰아가려는 거대한 세력들이 우리사회에 엄존해 있기 때문이었다. 불교신자 오태양씨의 선언은 이 문제가 특정종교의 문제가 아닌 '보편적 인간'의 권리임을 드러낸 일대 사건이었다.  
스리랑카의 스님 윌라 라홀라는 "불교에

서 비폭력과 평화는 보편적인 진리로서 설해지는 만큼 폭력이나 살생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 불교에서 '정당한 전쟁'이란 개념은 있을 수 없다. 우리의 전쟁은 언제나 정당하고 너희들의 전쟁은 언제나 부당하다"는 오태양씨의 선언은 이 문제를 불교는 취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렇다면 승병을 조직해 왜적과 싸웠던 서산과 사명을 어떻게 재인식해야 할까. 오태양씨가 던져준 화두다.  
최승천  
참여불교재가연대

### 지면안내

- 8면 날개 단 여성 꿈을 향해 날자  
'세계 여성의 날'이 지난 8일로 94주년을 맞았다. 이에 최근 우리 문화계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을 살펴본다.
- 4면 친일 명단 발표 논란
- 5면 예측 학문 미래학

## 동대신문사는 O2를 원한다

동대신문사 수습기자 모집

- 모집인원 : 서울·경주캠퍼스 00명
- 제출서류 : ①지원서1부 (본사에서 배부 중) ②자기소개서1부 (A4용지 1장 분량)
- 원서마감 및 선발 : 3월 21일(목)
- 장 소 : 본사 회의실 (학생회관 지하 1층)

\* 본사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활동비 및 해외연수 등의 특전이 부여됩니다.

발전기금 ARS 7000-119

### 동대신문사

# 이면계약 관련 학생대표회의 성사

## 총학 “정기적 정산서 공개로 재정 투명히 할 것”



지난 7일 중앙도서관 앞에서 '2002학년도 임시 학생대표자회의'가 열렸다.

새터 차량이면계약사건 해결을 위한 '2002학년도 임시 학생대표자회의'가 지난 7일 성사 돼 이번 사건에 대한 학생 대표들의 높은 관심을 나타냈다.

이날 총학생회(회장=주진완·국교4)는 해오름식·대동제·여름농활과 같이 예산이 많이 사용되는 사업 후 정산서를 공개하는 것을 포함해 △사건 관계자 추가 파악

후 공개 △단과대 대표가 참석하는 운영위원회 회의록 공개 △총학생회 내 추모사업회 건설 등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총학생회 발표내용은 '2000년 새터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의 요구를 적극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새터사건 부상학생 모임' 송영호(북한4) 대표는 "이면계

약사실을 숨겨 온 33대 총학생회 집행부 1명에 대한 진상조사가 진행중"이라며 명단에 공개되지 않은 사건 책임자가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공대위는 추가로 △34대 총학생회 집행부 공개적 인선기준 마련 △학생회 내 논의과정 공개 △인선 결과 공개를 요구해, 학생회 조직의 투명성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윤재욱(역교4) 총대의원장은 "집행부 인선 뿐 아니라 사퇴에 대한 의결도 학생들과 함께 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학생대표들은 재정활동 정산서 공개 시 발생할 수 있는 의문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업계획서를 함께 공개할 것을 결정하고, 졸업·휴학한 책임자의 사과문 게시 권고 등 사건 해결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제시했다. 총학생회는 단과대 홈페이지와 학생들의 이메일을 통해 해결 과정을 알려나갈 계획을 밝혔다.

또한 사건 책임자 명단 공개 기준에 대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차명근(법3) 법대 비대위원장은 "당시 사실은 인지했으나 직책이 없었던 성나현·김호중씨를 명단에 포함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며 공개명단에서 제외시킬 것을 요구했으나 전체 표결 결과 기각됐다.

이와 관련해 주진완 총학생회장은 "명단은 개인의 '양심 고백'에 근거한 것"이며 "명단에 공개된 책임자들은 이미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책임자들은 공개 사과를 통해 △사망자 부모님 방문 △전체 단과대 학생회와 간담회 실시 △졸업 전까지 추모비를 관리할 것 등을 밝혔으며, 오는 14일 오후 6시 소강당에서 공대위 등 학생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공청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조슬기 기자  
chof56@dongguk.edu



**왕사의 합장 ...** 티베트의 '정신적 지주' 링 린포체가 본교를 방문했다. 그는 정각원에서 열린 법회에 참석해 달라이라마의 방한 염원과 함께 방문소감을 전했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 회전문대

### 지금도 대기중

0...중앙도서관 1층 정보검색실 대기실에서 자리를 기다리던 학생들은 보이지 않는 줄에 당황스러웠다는데.

알아보니 수강정정기간 동안 여러 명이 한 대의 컴퓨터를 번갈아 가며 사용해 대기실에서 기다리던 학생은 순서가 되어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는 자신의 편의를 위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동이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대기석에 앉으면 망부석 된다(!)"

### 분단수업

0...지난주 사회학 전공수업인 '사회통계' 강의 학생들이 분단(?)의 아픔을 느끼게 됐다는데.

알아보니 강의계획과 달리 컴퓨터 실습실이 확보되지 않아 3시간 수업이 오전·오후로 나누어졌기 때문이라고.

이로 인해 다른 과목과 수업이 중복돼 불가피하게 수강을 취소하는 학생들이 있었다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수업분리와 함께 분산되는 학구열."

### 우편물 부리소

0...요즘 학생회관 1층 바닥 한켠에는 각 동아리로 배달된 우편물들을 공개전시하는 풍경이 연출된다는데.

이는 로비 바닥공사가 끝난 뒤 새 우편함 설치가 늦어져 임시로 바닥에 놓아 둔 우편물들을 해쳐 놓은 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이 때문에 일부 우편물은 동아리에 전달되기 전에 분실될 우려가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학관으로 배달된 우편물들, 해쳐 모여!"

### 다가려

0...요즘 동구관을 드나드는 신입생들은 소속 단과대가 위치한 곳을 찾지 못해 어리둥절해 한다는데.

알아보니 신입생을 유치하기 위한 동아리, 소모임 등의 대자보가 건물 벽면에 부착된 단과대 안내 표지판을 가리기 때문이라고.

신입생에게 한발 더 다가가기 위한 대자보가 건물지리에 낯선 학생들을 더욱 혼란스럽게 하고 있으니.

이에 본 회전문대자 왈, "대자보처럼 날아와 커튼처럼 가린다. 신입생이 어찌 알리(!)"

## 한국불교전서 13책 완간 '유가사지론' 파악 용이

한국불교전서 13책이 4년여만에 완간됐다.

이번에 완간된 13책은 불교전서 2·3책에 실린 '유가론기'를 수록하고 있지만, 이전과 달리 송장유전에서 발견된 송대의 목판본을 바탕으로 해 정확성에서 앞선다.

이와 관련 출판부의 한 관계자는 "본기에 해당하는 원문을 표시해 한 눈에 '유가사지론'을 파악할 수 있는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국불교전서는 신라에서 조선 말까지 한국인이 저술한 불교서적을 집대성한 것으로, 출판부는 1979년 1책을 시작으로 20년 넘게 불교전서를 발행하고 있다.

조 △운동회 등의 활동을 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참사람봉사단의 한 관계자는 "오는 20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봉사활동에 앞서 사회봉사를 미리 경험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 홍신선 교수 시인협회상 수상 시집 '자화상을 위하여'

문예창작과 홍신선 교수가 제 34회 한국시인협회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시인협회(회장=허영자)가 제정하는 이 상의 수상작은 홍교수의 시집 '자화상을 위하여'이다. 시상식은 오는 16일 오후 3시 연세재단빌딩 국제회의실에서 열린다.

## 교수학습법 서적 발간 지난해 교육포럼 내용 구성

교육연구원(원장=박명희·가정교육)이 '정보화 시대의 교수학습방법'을 발간했다.

지난해 6월부터 다섯차례에 걸쳐 진행된 교육포럼을 바탕으로 구성된 이 책은 △영상 실습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시설 '한사랑 마을'과 '향림원'에서 진행된, 봉사단원들은 △분류 및 대청소 △휠체어 보조 △식사보

## 참사람 복학기 현장학습 '향림원' 등 장애인시설

참사람봉사단(단장=김용기·수학교육)이 오는 16일 복학기 사회봉사 단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을 실시한다.

이번 현장체험은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중증장애인시설 '한사랑 마을'과 '향림원'에서 진행되며, 봉사단원들은 △분류 및 대청소 △휠체어 보조 △식사보

## 전기용량 증설공사 진행 다음달 5일부터 3일간 정전

전체 강의실 에어컨 설치와 중앙도서관 신축을 위한 전기용량 증설공사가 지난달 25일부터 진행 중이다.

현재 4천700KW의 전기용량을 6천750KW까지 증설하기 위한 이번 공사는 제반 공사를 진행한 후 △고압전기 증설을 위한 변압기 △강간물 강의실 콘센트 등을 설치할 예정이며, 이로 인해 다음달 5일부터 3일간 학교 전체가 정전될 예정이다.

## 생자대 학생회 정기적 설문 복지향상에 결과 반영

생명자원과학대 학생회(회장=신용화·생명자원산업융복3, 이하 생자대 학생회)가 단과대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설문조사는 해화관 벽면에 게시된 대자보에 스티커를 붙이는 형식으로 진행되며, 첫 번째로 '새터에서 가장 재밌었던 일'에 대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생자대 학생회는 이번 설문조사의 결과를 다음해 새터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신용화 학생회장은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들의 불편함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K교수 수업 폐강 예상

### 성폭력 근절위, 피켓 시위 등 "자진사퇴" 요구

성추행 혐의로 해임됐다 복직된 사회학과 K교수가 이번 학기 당한 3개 수업이 학생들의 반발로 모두 폐강될 예정이다.

총학생회와 사회학과 학생회로 구성된 '성폭력 근절을 위한 인권위원회'와 총학생회는 지난 4일부터 K교수의 수업이 진행되는 강의실에 자진사퇴를 요구하는 대자보를 붙이고 매 강의 시간마다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에 지난 5일 K교수는 피켓 시위에 대해, 학교 인근 장충공원과출소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K교수는

"성추행은 이미 법적 절차를 통해 무혐의가 증명됐다"며 "학생들이 강의를 방해하는 것은 엄연한 교권침해"라고 말했다.

현재 K교수는 이 문제를 교수회(회장=박종훈·윤리문화학) 교권위원회에 의뢰한 상태이다.

이와 관련해 이인재(사회3) 학생회장은 "K교수가 학자로서의 양심을 갖고 자진사퇴할 때까지 지속적인 시위를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학기 K교수가 담당한 과목은 사회학과 3. 4학년 전공과목인 △인구와 환경 △도시와 지역

사회 △Sociological research on korean society 등 3과목이다. 특히 '도시와 지역사회'는 사회과목 교직원수과목으로 지정돼 있기 때문에 폐강될 경우 일부 학생들의 피해가 예상된다.

한편, 오는 15일 본교를 포함, 연세대 서강대 고려대 경희대 총학생회로 구성된 '교수 성폭력 뿌리뽑기 연대회의'가 본교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반성폭력 학칙의 실효성 보완 등 공동 요구사항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보라 기자  
hvi01@dongguk.edu

## 교수회 정기총회 개최

### 연봉제 도입 등 논의

교수회(회장=박종훈·윤리문화학) 정기총회가 지난 7일 덕암세미나실에서 열렸다.

이번 총회에서 특별위원회가 제시한 내용은 △복지위원회 '계약직용제'와 새로 제정된 교수연봉제의 문제점 △규정연구위원회 '교원업적평가'와 인성평가제도의

문제점 △교육환경개선위원회 '연구년·책임시간 합리화 방향'이다.

이밖에 △병원회계와 교비회계와 관련한 학교의 재정상태와 운영상의 문제점 △K교수 강의 피켓 시위가 교권침해라는 점 등이 안건으로 제출됐다.

## 동국대학교 영자신문사 The Dongguk Post

### 수습기자 모집

### 끊임없는 자기開發,

### 다양한 경험은 대학생들의 필수입니다.

### 영자신문사에서 만끽하십시오!

대 상 : 02학년

원서 교부 및 접수 : 2002년 3월 20일 오후 5시까지

필기 시험 및 면접 : 2002년 3월 20일 오후 6시

장 소 : 학생회관 지하 1층 영자신문사 동국포스트

문 의 : (02) 2260-3493

※ 전 기자에게는 장학금과 소정의 활동비가 지급됩니다.

동국대학교 영자신문사  
**The Dongguk Post**

## 언어연구교육원 봄특강

	영어회화	Writing & Speaking	Screen English	Business English	CBT TOEFL	트루 잉글리쉬 특의	일본어
강 의	8:00-9:00 (월-목)	8:00-9:00 (월-목)		8:00-9:00 (월-목)		기본,중급,종합	
강 의	4:30-5:30 (월-목)	4:30-6:00 (월,수,금)	4:30-5:30 (월-목)		6:00-7:30 (월-목)	기본,중급,종합	5:00-6:30 (월,수,금)
정 원	13인	13인	20인	20인	30인	40인	20인
강 의	1차 : 2002년 3월 13일(수) - 2002년 4월 19일(금) (5주) 2차 : 2002년 4월 29일(월) - 2002년 5월 31일(금) (5주)						
수 강	본교생 8만원	본교생 10만원	본교생 8만원	본교생 8만원	본교생 8만원	기본,중급: 8만원	본교생 8만원
료	일반 9만원	일반 11만원	일반 9만원	일반 9만원	일반 9만원	종합: 10만원	일반 9만원
접수	2002년 2월 27일 (수)부터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						
문의	언어연구교육원 사무실 (해화관 1층) 전화: 2260-3470/1 팩스: 2260-9691 E-mail: today@dongguk.edu http://today.dongguk.ac.kr						

- ▶ 개강 : 3월 13일(수)
- ▶ 100% 출석 시 다음 특강 20% 할인
- ▶ 2과목 동시 수강시 1만원 할인
- ▶ 모의 토익 테스트 무료 응시 혜택
- ▶ 전 수강생 웹 토크의 무료 수강 - 언어연구교육원 홈페이지에서 개강 전 신청

서울캠 언어연구교육원  
The Center for Language Research and Instruction

## 언론사 준비반 입실시험 안내

1. 시험일시 : 2002년 3월 22일(금) 오후 4 : 00 ~ 6 : 00
2. 접수일시 : 2002년 3월 18일(월) ~ 3월 20일(수)까지
3. 접수장소 : 신문방송학과 사무실(동국관 3층 문구점 맞은편)  
※ 학생증사본, 성적증명서, 영어성적증명서(해당자에 한함) 제출
4. 시험자격
  - ① 현재 3학년, 4학년 재학중인 학생인 자
  - ② 2001년 2학기 현재 전학년 평균평점 2.5 이상인 자
  - ③ 남자인 경우 군필자 내지 면제자
5. 시험과목
  - ① 1차시험 : 영어, 논술  
- TOEFL : PBT 600점, CBT 250점 이상인 자, TOEIC 850점 이상인 자는 영어시험 면제 (단 2년 내의 성적표 제출)
  - ② 2차시험 : 면접  
- 면접은 필기시험 합격자에 한하여 실시 (합격자는 개별통지)
6. 선발인원 : 11명
7. 문 의 : 신문방송학과 사무실 ☎ 2260-8723

신문 방송 학과

### 사설

## 여권신장 위한 실질적 개선안 필요

지난 8일 '세계여성의 날'을 맞아 세계 곳곳에서는 다양한 축하 행사가 마련되었다. 러시아의 경우, 이날을 국가적 차원의 기념일로 지정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1985년을 시작으로 올해 18회 째 접어든 '한국여성대회'가 최초로 야외에서 진행됐다.

'3·8 세계여성의 날'은 1908년 미국에서 1만5천여명의 여성노동자들이 시위를 벌인데서 유래되어 유엔이 1975년 공식 지정한 이후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 이 날은 사회적 약자로 취급받아온 여성이 스스로 지위를 향상시키려 노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와 함께 20세기 들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여권이 신장된 것 또한 빼놓을 수 없는 사실이다.

특히 여성의 지위 변화는 대학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4년제 대학에서 여대생이 차지하는 비율을 살펴보면 70년 22.3%에서 이미 지난해 36%를 넘어섰고 여학생이 총학생회장으로 당선되는 것도 더 이상 놀랄 일이 아니다. 게다가 그동안 쉽게 꺼내지 못했던 학내 성폭력 문제도 공공연히 드러내 가해자의 공개 사과문을 받아내는 등 지속적인 여권신장운동이 빛을 발하고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전체 여성의 지위 변화는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이는 유엔개발계획(UNDP)에서 발표한 '인간개발지수 2000'에서 우리나라의 성평등 관계를 계량화한 성별 능력지수(GEM)가 총 70개국의 조사대상국 가운데 63위를 차지한 것만 보아도 알 수 있다. 국제노동기구(ILO)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우리나라는 지난 5년 동안 여성의 관리자 점유율이 오히려 감소한 나

라로 조사돼 고위직 진출에서 성차별이 심한 나라로 분류되었다. 대학내 여성의 수도 증가하기는 했으나 학생을 제외한 여교수와 여직원의 상황은 열악하게 그치지 않았다. 여교수의 경우, 국공립대와 사립대를 모두 합쳐 14.1%에 그쳐 여학생 비율증가에 현저히 뒤떨어지고 있다. 본교 또한 9.9%의 비율로 평균에도 못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얼마전 세계은행은 여성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신장한 나라는 부패가 감소하고 경제가 성장했다는 보고서를 냈다. 여권신장의 영향이 단순히 여성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다. 이는 '세계여성의 날'이 단순히 하루에 그칠 것이 아니라 법적·제도적 차원에서 오랜 기간 지속되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내년에는 좀 더 실질적 개선안을 가지고 세계여성의 날을 맞게 되길 기대해 본다.

### 논단

#### 정대화

상지대 교수·정치학



웃이나 구두가 몸에 맞지 않으면 움직이는 데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럽다. 지금 선거법이 이와 같은 상황이다. 현행 선거법은 국민의 의식수준과 변화된 사회상황을 따라가지 못하고 국민의 참여를 가로막고 공명선거를 해치는 악역을 담당하고 있다. 국가보안법이 남북한의 평화를 해치고 사립학교법이 사학부패를 조장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치라 할 수 있다.

2년전 제16대 총선 당시 총선시민연대가 낙선운동을 전개해 부패하고 무능한 정치인들 다수를 국회에서 추방한 바 있다. 전국의 시민사회운동단체들이 낙선운동에 나선 것은 정치부패가 민주화와 개혁을 가로막고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제16대 국회의 일차적인 과제는 정치개혁이었으며, 이를 위해 국회에 여·

그 중에서도 현시점에서 가장 긴급한 것은 정치권이 부패한 세력과 결탁해서 음성적으로 주고받는 검은 자금을 제도적으로 차단함으로써 깨끗한 선거, 돈 안쓰는 선거를 실현하는 것이다. 정경유착을 발판으로 한 검은 돈의 유입을 차단하지 않고서는, 그리고 선거자금의 수입과 지출에서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민주주의를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특히 선거과정에서 선거자금의 수입과 지출을 하나의 계좌를 사용해서 처리하고, 일정 금액 이상의 지출에는 현금 대신 수표를 사용하고, 모든 지출은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개정요구는 민주화에 따른 사회상황의 변화와 국민들의 정치의식 변화를

### 월드컵 앞둔 노점상, 노숙인 단속 논란

## 무조건적인 단속이 능사인가

월드컵이 8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경기를 치르는 각 지자체들은 행사를 위한 마무리 작업에 여념이 없다. 그러나 최근 정부가 월드컵 준비를 위해 노점상과 노숙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정부의 논리와 "국제행사 때마다 희생을 강요당하고 있다"는 노점상, 노숙인들의 주장이 맞서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월드컵 기간 동안 노점상과 노숙인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각 지자체들은 노점상 단속비용을 늘리고 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해 단속을 나섰고, 서울시는 지난달 16일 노점 정비반을 구성한 후 10일부터 불법 노점상을 집중 단속하고 있다. 또한 노숙자특별대책을 시행해 이태원과 동대문 등 외국인 선호지역과 경기장 주

변 6곳을 노숙금지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이러한 방침은 노점상 및 노숙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사고 있다. 전국 노점상연합회는 지난 5일 종묘공원에서 집회를 열고 "정부가 용역 강제를 앞세워 유일한 생존 수단인 손수레를 빼앗고 파태로까지 부과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이들은 정부가 별다른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단속에만 치우친다고 비판한다. 외국에서는 노점이 훌륭한 관광자원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단속의 대상으로만 바라본다는 것이다. 전국노점상연합회 최인기 사무처장은 "수익원을 들여 단속을 하느니 차라리 그 비용으로 자율정비를 하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노점상 '단속'이 아니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국인들이 택시운전자 다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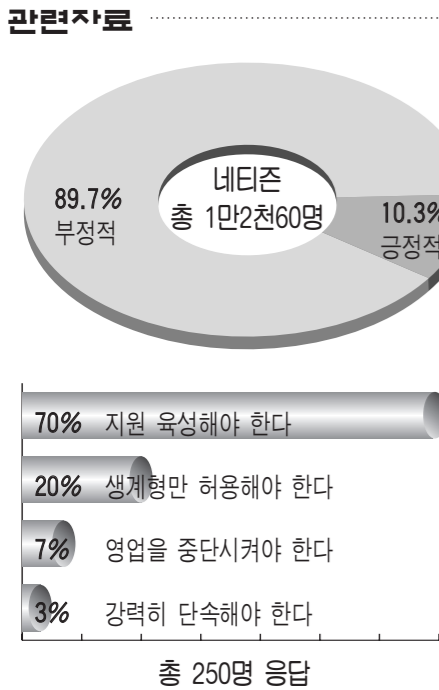
으로 많이 만나는 사람들이 노점상들이 만큼 최소한의 영여회화 교육을 지원하면 월드컵 홍보대사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떡볶이 등 조리 음식을 비위생적이라는 이유로 판매금지하고 대신 햄버거와 같은 패스트푸드 종류만 허용하기로 한 정책 역시 졸속행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인터넷 게시판에는 "우리 것이 좋다고 하면서 월드컵이 열리니까 외국인들 들어 단속을 하느니 차라리 그 비용으로 자율정비를 하게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처럼 노점상 '단속'이 아니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외국인들이 택시운전자 다음

기간동안 노숙인들을 지방 민간시설에 보내 4백5일간 특별연수를 시킬 계획이었다. 하지만 선진국은 세계적 행사 때에도 노숙인들을 그대로 두는데 왜 아직도 노숙인들을 눈에 안 보이게 만드느냐는 비판이 일어 철회하고 만 것이다.

2000년 10월 열린 아셈 행사 때 우리나라를 방문한 한 외국인은 "단순히 하나의 행사를 위해 차량 2부제를 비롯한 갑갑적인 규제를 실시한다는 게 믿겨지지 않는다"며 놀라워했다고 한다. 국가적인 행사를 의식한 지나친 근시안적 정책이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우정현기자  
caesar2000@dongguk.edu



관련자료

“서울시가 노점상에서 떡볶이와 어묵꼬치 등 조리음식 판매를 금지하겠다는 방침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월드컵 기간 동안 노점상을 어떻게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 동기만평

임희정 texaswind@hanmail.net

## 국민참여 발목잡는 선거법

아를 망라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됐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국회개혁, 정당개혁, 선거개혁의 3대 과제를 설정하여 관련 법률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러나 특유의 거의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그나마 몇 차례 모임을 가졌던 선거법 개정 논의 역시 극히 피상적인 수준에 머물고 말았다.

현재 선거법과 관련해서 주요 개정사안은 크게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선거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선거연령을 현행 20세에서 18세나 19세로 낮추고 시민단체의 선거참여를 허용하는 문제, 둘째, 국민 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현행 소선거구제를 중대선거구제로 바꾸고 유권자가 선호하는 정당과 후보에게 각각 투표를 하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문제, 셋째, 최근의 사회변화를 감안하여 정당의 상향식 공천 및 예비경선 관련 조항을 법에 추가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당활동을 허용하는 문제, 넷째, 선거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선거운동 기간을 폐지하는 대신 선거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을 도입하는 문제, 마지막으로 표의 등가성을 보장하기 위한 선거구 인구편차의 축소 등이다.

반영하는 것이기에 단순한 자구수정이나 피상적인 개정으로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말하자면 법개정을 통해서 정치와 선거의 틀을 새롭게 재구성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다. 게다가 이러한 개정사안들은 하나 하나가 모두 국민적 관심사임인 동시에 또한 불가피하게 상당한 논란을 동반할 수 있는 것들이 만큼 국민들의 의사를 모으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개혁특위는 눈앞에 닥친 6월 지방선거를 위한 최소한의 선거법 개정만을 위해 몇 차례 모였을 뿐 선거법의 전향적인 개정이나 정치개혁을 위한 법개정이란 목적에는 관심을 보여주지 않았다.

우리 사회는 1987년의 6월민주항쟁 이후 어려운 조건 속에서도 꾸준히 민주화와 개혁을 추진해왔다. 그러나 선거법과 정당법 등 정치인들의 이해관계가 걸린 법률은 민주적으로 개정되지 못하거나 오히려 왜곡되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정치인들이 정치개혁에 의지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치개혁을 제대로 추진하고 국민이 주체가 되는 민주적인 선거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치개혁에 직접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

## 해외 자매대학 교환유학생 선발

1. 해당대학 : 일본 대정대학(大正大學·Taisho University)
2. 파견기간 : 2002. 9. ~ 2003. 8. (1년)
3. 선발인원 : 1명
4. 지원지역(외국인 및 재외국민 특례입학자는 지원 불가)
  - 가. 서울캠퍼스 일반대학원 석·박사과정 재학생이나
  - 나. 서울 및 경주캠퍼스 학부과정 3학년(5학기) 재학생으로서
  - 다. 학부과정 평점평균이 3.0 이상이며, 학점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자
5. 파견조건
  - 가. 본교측
    - 1) 파견기간 중의 등록금을 본교에 납부하여 재학생 신분을 유지해야 하되, 본교 장학금 선발규정에 의거한 해당자에 한하여 해당학기 고지 등록금의 30%를 장학금으로 지급(감면)함.
    - 2) 파견기간 중에 취득한 교과목의 명칭·학점·성적은 최대한 동일하게 적용되며, 이수구분 등 동일한 적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학과 주임 교수가 결정하며, 학점인정 범위는 해당학과 졸업학점의 1/4까지로 함.
      - \* 석·박사과정의 경우는 대학원 관련규정에 따름.
    - 나. 일본 대정대학측 : 학비 면제, 기숙사비 본인 부담, 소정의 장학금 지급
6. 전형방식
  - 가. 학부과정 성적 평가 50%
  - 나. 일반면접(1차·2차) 평가 50% - 일본어능력시험(JLPT) 성적 평가 포함
7. 신청서류
  - 가. 해외 자매대학 교환유학생 지원신청서(소정양식)
  - 나. 재학 및 성적증명서(학부과정 성적 포함)
  - 라. 어학능력시험(JLPT) 인증서 - 소지자에 한함
8. 전형일정
  - 가. 원서교부·접수 : 2002. 3. 4(월) ~ 3. 19(화), 국제교류실
  - 나. 면접 : 2002. 3. 22(금) 14:00 ~ , 국제교류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제교류실 ☎ 02-2260-3876, 본관 2층로 문의 바랍니다.

연 구 처

## 차량 10부제 시행안내

교내 주차공간의 협소로 인하여 차량 10부제 운영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알려드리오니, 전 교직원 선생님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1. 시 행 일 : 2002년 3월 5일(화)부터
2. 시행방법 : 차량 끝자리 번호 해당날짜에 운행금지
3. 주 5일(월~금) 실시
  - 가. 매달 31일은 전차량 10부제 제외
  - 나. 학교 공용차량 및 전차량 적용 (업체마크가 부착된 A/S 및 공사차량 제외)
  - \* 중문(회화문) 개방(차량통행)시간
    - 가. 학기중 : 16:30 ~ 22:30
    - 나. 공휴일/토·일요일은 차량통행 불가
  - \* 유의사항 : 차량 주차시 반드시 지정된 주차구획선 안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조제동장치를 필히 작동하여 주시기 바람. (주차구획선 주변지대의 이중주차 및 기타 중립상태 주차 금지)

### 사 무 처

### 알 림

제일은행 경주캠퍼스 출장소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철수하게 되었으나 서울캠퍼스 출장소는 계속 유지 하오니 학생 여러분의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제 일은 행 퇴 계 로 지 점

## 전통사찰음식 조리강좌 수강생 모집

전통사찰음식을 통하여 불교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돕고자 제4기 전통 사찰음식 조리강좌 수강생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1. 대 상 : 동국인 남녀 누구나 (대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사회교육원생)
2. 접 수 : 2002년 3월 13일(수) ~ 3월 19일(화)
3. 정 원 : 30명(선착순 마감)
4. 진행방식 : 이론 + 조리실습 + 시식
5. 교육장소 : 학림관 조리실습실(사범대 1층)
6. 강 사 : 선재스님(선재사찰음식문화연구원장)
7. 수강료 : 70,000원(재료비 포함)
8. 교육기간 : 2002년 3월 20일 ~ 5월 29일, 매주 수요일 10:00-12:30
9. 문 의 : 여학생실 ☎ 2260-3056

여 학생 실 · 가정 교육 과

동약로

철없는(?) 외출



“어, 여기 내 얼굴이...”  
 장충공원 파출소 안.  
 수배자 명단에서 자신의 얼굴을 본 서울캠 주진완(국교4) 총학생회장이 당황한 표정을 띠며 다급히 몸을 틀었다.  
 “야! 저 자식 빨리 잡아!”  
 이내 놀란 표정의 경찰들이 책상을 뛰어 넘으며 황급히 움직였다. 이에 주위에 있던 학생들이 불려들어 파출소 안은 순식간에 이수라장으로 변했다.  
 지난 5일, 총학생회와 사회학과 학생회를 포함한 50여명의 학생들은 동국관 강의실에서 K교수의 강의를 반대하는 피켓 시위를 진행했다.  
 그러던 중 장충공원 파출소로 향한 K교수의 ‘갑작스런’ 행동으로 시위는 파출소 앞까지 이어졌다.  
 K교수야 종적을 감춘 지 십여 분 후, 파출소 문이 열리며 한 경찰이 밖으로 나왔다.  
 “학생 대표자들만 들어와 어떻게 된 상황인지 설명 좀 해봐요.”  
 총학생회장을 포함한 대표자들이 파출소 안으로 들어갔고, 이 후 위와 같은 소동이 일어난 것이다.  
 “어떻게 학교 앞에서 폭력적으로 학생을 잡으려고 할 수 있습니까?”  
 학생들과 경찰들은 몸싸움을 벌였고, 총학생회장은 가까스로 몸을 피할 수 있었다.  
 잠깐 동안의 소동은 서로 육신각신하던 끝에 해결됐지만 그 장소에 있던 많은 학생들은 새삼 학생 수배자의 ‘아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소동이 자신의 ‘신분’을 미처 깨닫지 못한 대표자의 어이없는 실수라고만 여기기엔 어딘가 석연치 못한 이유가 있다. 신변의 위협을 느껴 파출소 행을 한 K교수와 K교수를 쫓아 들어간 파출소에서 신변의 위협을 느낀 총학생회장. 한순간 역전된 이 둘의 관계를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바로 국가보안법이라는 ‘거물’이 버티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  
 하루빨리 그 ‘거물’이 법전에서 물러나기를 기다려 본다.

한보라 기자 hviolet@dongguk.edu

‘민족정기를 세우는 의원모임’ 김희선 회장을 만나

“국민여론 모아 특별법 제정에 힘쓸 것”



해방이후 처음으로 국회의원들이 친일행위자를 공식적으로 발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회장=김희선) 소속 의원들은 3.1절을 하루 앞둔 지난달 28일 ‘친일반민족행위자 1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명단에는 일제 때 조선일보 사주인 방응모와 동아일보 사주인 김성수 등 주류 언론사들과 관련된 인물이 포함되어 있어 더욱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조선일보 등 몇몇 보수 언론들은 명단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고 각 정당들은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 김희선(민주당) 의원을 만나 친일반민족행위자 발표 과정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으로의 계획 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 친일행위자 명단을 발표하게 된 계기는.  
 = 작년에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를 계기로 몇몇 국회의원들이 모여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1차 발표는 그동안 사회 곳곳에 존재했던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한 첫 번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움직임이 일본 내에서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등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려는 사람들에게도 도움을 주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도 염두에 두었다.

- 명단의 객관성을 문제삼는 의견도 있는데.  
 = 이번 1차 발표는 광복회에서 친일행위자를 발표해 달라는 청원을 하며 제출한 친일행위자 692명과 발표 보류 상태였던 17명 중 16명을 포함하여 총 708명을 대상으로 했다. 조선일보 등 몇몇 신문은 이들 중 추가된 16명을 선출한 과정을 문제삼았다.  
 하지만 발표 보류 상태였던 17명의 경우 몇몇 신문사의 주장처럼 친일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가 아닌 발표 시점에 대한 논란이 있었던 정도였다. 이들은 학계와 법조계, 언론계 인물들로 구성된 9명의 자문위원들 합의 아래 명단에 포함된 것이므로 객관성 여부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

- 발표 초기와 다르게 국민적 관심이 점점 떨어지고 있어 단순한 발표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큰데.  
 = 모임 내부에서도 가장 우려하고 있는 점이다. 국민들의 관심이 떨어질 경우 이번 발표가 단순한 해프닝으로 마무리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 여론을 끌어 모아 빠른 시일 안에 ‘친일행위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2차 발표부터는 국가기관에서 조사 및 발표를 맡아서 할 수 있게 되고 친일인명사전 편찬 등 민간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일제잔재 청산 운동에도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친일 명단 발표가 오랫동안 왜곡되었던 역사를 바로 잡는 첫걸음인 만큼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한다.

- ‘친일행위자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은.  
 = 이달 중 반민족 행위를 규정하는 범주 등에 대한 공청회를 2차례 정도 가질 계획이다. 더불어 모임에 소속된 여·야 의원들이 각 당의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한나라당에서도 일부 젊은 의원들이 동참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다. 빠르면 4월 정기국회 때 입법안을 제출하여 특별법을 제정하도록 힘을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yearam@dongguk.edu

권상로 전 총장 친일명단에 포함



본교 권상로 초대총장이 이번 708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포함됐다.  
 1952년 학장직을 지내다 본교가 동국대학교로 승격된 후 5개월간 총장직을 역임한 권상로 전 총장은 뛰어난 문필가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1930년대 후반부터 별인행적이 문제시되어 이번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친일행적을 살펴보면 △1937년 연설을 통해 일제의 침략전쟁에 적극 협력할 것을 호소 △총독부 시국강연회에 참여 △일방인, 승려, 불교 신도들에게 진행한 친일강연이 있다. 또한 총독부가 ‘육군특별지원병제’를 실시한 1938년에는 지원병제를 찬성하는 내용의 ‘승려지원병에 대하여’라는 글을 발표하기도 했다.  
 한편 이에 대해 본교 홈페이지 ‘나의 주장’ 게시판에는 “안타깝다” “마음이 아프다”는 글이 올라왔다.  
 이외에도 이번 명단에는 대학 설립자나 총장 등 교육계 인사들이 대거 포함되어 눈길을 끈다. 보성전문학교를 인수하여 현

재의 고려대로 키운 김성수는 ‘민족지도자로 둔갑한 친일자본가’라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근대 여성 교육의 선구자로 칭송 받았던 여성교육자들도 이번 발표를 통해 친일행적이 드러났다. 대표적인 여성지도자로 꼽히는 김활란 전 이화여대 이사장을 포함해 인덕대의 박인덕 전 총장, 서울여대의 고험경 전 학장 역시 명단에 올랐다.

친일인명사전 편찬 움직임

이번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발표가 ‘제2의 반민특위’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에 가속도를 붙게 할 수 있을까. 친일인명사전 사업은 친일역사 청산문제를 연구해온 민족문제연구소가 지난 99년 편찬계획을 공식 발표한 이후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해 오다가, 지난해 12월2일 통일시대 민족문화재단 발족식과 함께 공식적인 편찬작업에 들어갔다.  
 앞으로 3년동안 30여권으로 발행될 계획이며, 이번에 발표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보다 훨씬 많은 인원을 담고 있어서 발간될 경우 사회적 파장이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현재 약 30여억원의 사업추진비를 감당하지 못해 작업이 지지부진한 상태지만 이번 일을 계기로 특별법이 제정된다면 편찬 작업이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사회부 society@dongguk.edu



‘체대 전투기(F-X) 도입사업 반대’ 집회가 지난 8일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참가자들은 지난 6일부터 농성, 1인시위 등을 통해 전투기도입사업의 부당함을 알렸다. 김진성 기자 yearam@dongguk.edu

치안유지법에서 테러방지법까지

일제법 상당부분 잔존 ... 국가주의·파시즘 논리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법에 대해 복잡한 감정을 갖고 있다. ‘법만 피하면 문제될 것 없다’는 생각이 공공연하게 퍼져 있는가 하면 ‘법대로 합시다’라는 말에는 무의식적인 불안감과 두려움을 느끼기도 한다.

법에 대한 복잡한 심리

몇몇 법학자들은 이러한 심리적 원인을 일제잔재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한 데서 찾고 있다. 일제가 식민지를 통치하는 데 쓰였던 법의 잔재와 정신이 남아 있어 국민들이 법에 대해 자연스럽게 불신을 쌓게 되었다는 것이다.  
 본교 비교법연구소의 권영복씨는 현재의 법이 “사회정의를 수호하기보다는 일제시대처럼 국민 위에 군림하고 지배하려는 성격이 강해 국민들에게 식민지시절의 ‘노예근성’을 갖게 한다”고 지적한다.

노조를 없애기 위해 ‘구사대’라는 테러조직까지 동원하는 등 치안유지법 명분으로 노동운동을 심하게 탄압했던 일본의 모습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의해 노동자가 구속되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 같은 흐름 속에 함께 있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1948년 제정된 헌법은 ‘현행법령은 이 헌법에 저촉되지 않는 한 효력을 가진다’며 일제 식민지기간 동안 시행해온 법의 대부분을 인정해 현재까지 그 뿌리가 남아있다.  
 이에 한상범 민족문제연구소장은 “더욱 심각한 것은 이러한 법에 스며들어 있는 일본식 국가주의, 파시즘, 관료주의와 같은 정신이 계속 유지되는 동시에 확대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지적한다.

테러방지법에 대한 우려

그렇다면 일제 식민지 시절의 법 내용과 정신이 현재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을까.

한편 최근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에 국민의 권리보다는 국가의 안보를 먼저 내세우는 국가주의와 법률만능주의가 숨겨져 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각 조항의 정의가 모호하고 테러범죄 미신고죄, 허위신고죄 등이 국가보안법 7조의 불고지죄와 내용이 비슷해 시민단체들은 이미 ‘제2의 국가보안법’이 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 상태다.  
 국민들 대다수가 법에 대한 불신과 두려움을 동시에 갖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의 법이 국민에 군림하려는 성격을 아직 버리지 못한 것은 국가보안법이나 노동운동 탄압, 자백강요 등에서 이미 잘 드러나고 있다. 분명한 것은 국민에 대한 잘못된 ‘지배’의식의 청산 없이 인권침해 소지가 담긴 법이 계속 제정된다면 법에 대한 믿음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테러방지법 또한 이러한 흐름에서 지켜 봐야 할 것이다.

곳곳에 남겨진 일제의 흔적

일제식민지 시절의 법을 가장 악질적으로 답습한 대표적인 예가 국가보안법이다.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모태로 한 이 법은 집행과정에서 고문, 자백강요 등 일제관습을 엿볼 수 있다.  
 노동법에서도 일제의 그늘을 살펴볼 수 있다. 여수공대 이철호(경찰행정학) 교수는 “일본은 더 쉬운 방법으로 통치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유교적 봉건주의를 왜곡하기도 했다”며 이는 일제가 “노사관계를 주인이론과 머슴의 관계로 규정된 것에서도 잘 나타난다”고 지적한다.  
 또한 1953년에 제정된 노사관계법이 일본 노동법의 복사판이라는 것을 법조계 일부는 공공연한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는 실정이다.  
 송윤경 기자 itsU@dongguk.edu



# 미래의 모습을 선명하게 보여주는 창, 미래학

## 과학적 연구를 통해 가능성 높은 변화 유형 제시

지난해 미국 9.11 테러 이후 인터넷 상에서는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이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노스트라다무스가 예언서를 통해 9.11 테러를 섬뜩할 정도로 정확하게 묘사했다는 해석 때문이다.

그러나 그의 예언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난무했고 실제 노스트라다무스의 '모든 세기' 예언서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는 글이 다시 한번 인터넷 게시판을 덮었다.

이처럼 큰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부각되는 예언에 대해 사람들이 '믿거나 말거나'의 입장을 보이는 것은 예언이 과학적인 연구방법에 의한 연구결과가 아니며, 예언을 뒷받침하는 자료도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예전부터 사람들은 좀 더 객관적인 미래에 대해 알고 싶어했고, 이러한 욕망이 과학적인 연구방법을 통해 예측으로 나타났다.

예언이 아닌 예측은 과학적 연구를 통해 발생 가능성이 높은 미래를 확인시켜주고 가능한 미래의 다양한 변화 유형을 제시해 준다. 이를 통해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피해야 하고 어떤 것을 추구해야 하는가를 보여주고, 나아가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마련해 주는 것이다.

이것이 학문영역으로 정착된 것이 바로 미래학(Futurology)이다. 미래학은 미래예측과 함께 탄생했기 때문에 미래예측방법론이 확고한 기반을 내리기 전까지는 학문영역으로서 정착되지 못했다. 이후 196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래학회, 등이 설립되고 다양한 미래예측방법론이 개발됨에 따라 미래학은 하나의 학문영역으로 정착됐다.

이러한 미래학은 과학적 원칙뿐 아니라 정신적 요소, 신비성을 모두 포함하기 때문에 예술적 요소와 과학적 요소가 함께 공존하는 독특한 학문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미래학자들이 다루는 영역과 방법, 관점에 따라 외삽주의적 미래학과<sup>1)</sup>, 전이주의적 미래학과<sup>2)</sup>, 급진주의적 미래학과<sup>3)</sup> 등으로 분류되기 시작했다.

초기 미래학은 미래학자들이 예측한 미래사회의 특징이 뚜렷하게 부각되지 않았기 때문에 공감대를 얻지 못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미래연구 결과는 새로운 현실로 나타나거나, 또는 하나의 현실로 접근하게 되면서 각광받게 됐다.

최근 미래학자들은 2050년 이전의 미래 모습까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다. 얼마전 세계 미래학계는 21세기에 실현될 것으로 예측한 과학기술 발전추세를 제시하기도 했다.

세계 미래학계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1년에는 전기자동차가 보편화되고 2016년에는 사람들이 학습활동에서 움직이는 로봇을 활용하게 된

다고 한다. 또 2049년에는 인간이 우주 어딘가에 존재하는 지적 능력을 가진 생물체와 접촉하게 된다는 예측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예측을 제시하는 미래학에 대해 일부에서는 현실도피의 무책임한 영타리 학문이라는 비판을 가하기도 하지만 최근 미래연구는 기업·정보통신·환경과 자원 등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으며, 선진국을 중심으로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학술부 imperial@dongguk.edu

- 1) 과거로 부터 현재까지 추세의 연속을 통해 미래를 예측해야 한다는 입장.
- 2) 역사는 어떤 전환점을 통해 변화의 경계로 생겨 한 형태의 변화로 부터 다른 형태의 변화로 바뀐다는 입장.
- 3) 새로운 사회는 총체적 위기, 혼란 등에 의해 형성된다는 입장.



### 감기와 독감의 차이

감기는 어떠한 상태의 시기인가에 대한 판정이 대단히 중요하다. 감기는 급성병이기 때문에 감기가 걸린 시초인가, 감기가 걸린지 2~3일이 지난 상태인가 등 병기에 따라 처방을 달리한다.

일반적인 감기와 독감은 증상이 비슷해도 전혀 다른 병이다. "독감 백신을 맞았는데 왜 지금 감기에 걸리죠?" 요즘 병·의원에는 이런 질문을 하는 환자들이 적지 않다. 독감을 독한 감기로 여기고 하는 질문이나 독감과 감기는 엄연히 다른 질환이다.

감기는 리노 바이러스를 비롯해 로타, 아데노, 파라인플루엔자 등의 바이러스 때문에 4일~2주 정도 코와 목 등이 아픈 병인 반면 독감은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로 불리는 오소믹스 바이러스가 폐에 침투해 1주정도 고열과 두통·근육통이 생기고 온몸이 떨리는 병이다.

독감의 경우는 예를 들면 아침에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었다면 해질녘에는 발열하는 경우로 특별한 진행이 빨라 대략 다섯 시간 정도에서 감염·발병해 버린다. 그러므로 발병하면 그 즉시 처치하지 않으면 안 된다.

보통 감기의 경우는 걸리면 열이 날 때까지 2~3일은 걸린다. 빠른 사람도 확실한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하루 반 정도의 기간이 있다. 인플루엔자에 비해 그 사이의 여유가 있으므로 감기가 본격화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도 무리를 하면 본격적인 감기가 된다.

감기는 한의학이 유효하게 이용되는 병종의 하나이다. 한방 감기 치료시 주의사항은 해열제를 병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발열반응은 감기를 치료하는 데 있어 중요한 반응이다.

그러나 서양의학에서는 진통해열제에 의하여 열을 내리면 조금이나마 병의 일부가 개선된다고 생각한다. 한편, 한방에서는 발열은 병에 대한 몸의 투병반응이라고 생각하여 이것을 억제하지 않는다. 즉 감기 초기에는 어느 정도의 발열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감의 경우 아침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저녁에는 독감으로 되어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수 시간 내에 인플루엔자에 대항하는 몸의 태세를 만들지 않으면 바이러스에 패하게 된다. 그와 같은 긴급사태에 있어서 가장 효율이 좋은 방법이 열을 올리는 것이다. 인플루엔자·바이러스가 열을 올리는 것은 아니고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하여 몸의 반응으로서 열을 올리는 것이다.

감기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 집에 돌아오면 손을 깨끗이 씻고 양치질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잘 때에는 가슴기를 튼 상태에서 바람이 들어올라 말라하는 정도로 창문을 열어놓는 것이 좋다. 비타민C 과다 복용은 설사·요로결석 등을 일으키므로 남용하지 않도록 한다.

감기는 독감이며 △증세가 3주 이상 가거나 목이 한 달 이상 쉬고 △음식을 삼키기 곤란하거나 누런 콧물이 나올 경우 등은 다른 질환일 수 있으므로 병원에 가야 한다.

### 21세기 지식인 사전

#### 미래학자 존 내스비트(John Naisbitts)

미래예측 분야의 대표적 인물로 꼽히는 존 내스비트(73·John Naisbitts) 박사는 '메가트렌드(Megatrends)'라는 저서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녀는 이 저서를 통해 메가트렌드라는 신조어를 만들었는데 메가트렌드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대한 조류(trend)를 의미하는 것이다.

내스비트 박사는 1929년 미국 유타주 남부 글렌우드에서 태어나 유타대와 하버드대 등에서 정치학을 공부했다.

이후 이스트먼 코닥사에서 근무하다 존슨 행정부 당시 교육부 장관 자문관으로 발탁했으며, 대통령 보좌관으로 일하기도 했다.

그녀는 2년 이상 베스트셀러에 올랐던 메가트렌드 뿐만 아니라 기술과 인간성의 조화를 강조하는 '하이테크'로도 유명하다. 그는 '하이테크 하이테크'라는 책을 통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들은 이미 기술에 쫓겨나고 있으며 인간이 기술에 지배당하는 꼴을 면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범재가 가미된 균형된 삶을 찾아야 한다"고 역설하기도 했다.

또한 내스비트 박사는 요리·집안 가구기에서부터 패션·생활용품까지 광범한 여성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관여되는 거의 모든 일에 대해 연구한 미국 여성의 표상이라고 할 수 있다.

#### 하인호(한국미래학연구원장) 박사 인터뷰

## "21세기 대학생들, 디지털 지식사회마인드 갖춰야"

선진국에서 미래학 연구가 성행하면서 한국에서도 90년대 후반부터 미래연구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아직 초기단계인 한국의 미래학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한국미래학 연구원 하인호 원장을 만나 21세기 한국미래학과 대학의 미래에 대해 들어보았다.

- 우리나라에서 미래학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 90년대 후반 첨단 기술공학과 전자공학이 급격히 발달하면서 미래예측방법론 뿐만 아니라 기법도 더욱 정교화 됐다. 때문에 미래학이 세계적으로 보편화되고 이러한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1995년 한국미래학연구원이 설립되면서 본격적으로 미래연구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이다.

- 최근 한국미래학연구원에서 연구하고 있는 것은.

= 아직 한국 미래학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연구보다는 미래학에 대한 토대미련에 중점을 두고 있다. 현재는 전세계에서 연구되고 있는 미래연구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중이다. 또한 미래학을 통한 경영전략이 좋은 결

과를 보여주고 있어 기업체에 미래 환경분석을 제공하고 컨설팅을 도와주고 있기도 하다.

- 대학에서도 미래학에 대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데.

= 지난해부터 한신대학교에서 미래학을 정규 교양과목으로 채택했다. 100명 이상의 학생들이 수강할 만큼 학생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다. 팀 티칭 방식으로 7명의 강사가 한 강좌를 강의하고 있으며, 강의를 통해 학생들이 21세기에 맞는 마인드를 갖추도록 유도하고 있다.

- 21세기에 필요한 마인드란 무엇인가.

= 21세기 한국사회를 움직일 대학생들의 필수적인 마인드는 '디지털 지식사회마인드'이다. 여기서 말하는 마인드는 개인 역량이라고 할 수 있는데 디지털 지식사회가 초래하는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필수적 토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디지털 지식사회마인드는 가치관 전환능력, 사고의 유연성, 사고의 적극성, 지식근로 기본능력 등이다.

- 디지털 사회에서 대학 교육 또한 변화가 필요할텐데.



= 앞으로 한국 대학은 국내의 경쟁으로 춘추전국시대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때문에 경쟁에 필요한 능력을 갖춰야 한다. 대학은 디지털 지식사회에 알맞게 대학교육의 질을 높여야 하며, 학생에 대한 서비스를 가속화시켜 21세기 키워드인 감성·정보·학습·즐거움이 풍요로운 대학 문화를 정착시켜야 한다.

- 앞으로 한국미래학과 대학의 미래를 예측해 본다면.

= 현재 서구미래학을 받아들이고 있는 한국의 미래연구는 이제 정착단계에 지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할 것이다. 더불어 동양 미래학과 서구미래학을 통합하는 추세도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또한 2005년경부터 혁신적인 대학은 황금시대를 맞이하고 그렇지 못한 대학은 생존자체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때문에 대학 개혁은 피할 수 없는 과제로 부각될 것이다.

김현정 기자 tellme@dongguk.edu



# 야호! 마우스로 떠나는 문화재 여행

##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 ... 영화·게임·애니메이션 등 문화산업의 밑바탕될 것



‘용의 눈물’부터 ‘여인천하’ ‘왕건’ 그리고 ‘제국의 아침’까지, 요 몇 년 전부터 거세게 일고있는 사극열풍은 우리 역사는 물론 전통문화와 문화재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에 지대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는 우리 것을 널리 알렸다는 측면과 함께, 극의 배경이 되는 당시 생활상을 그대로 재현하고자 끊임없이 연구한 사료와 철저한 고증에 의해 학문적 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2006년까지 5년간 우리 역사의 문화원형을 디지털콘텐츠화 하겠다는 문화관광부의 최근 발표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의미 있다. 문화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www.kocca.or.kr)을 중심으로 진행되는 이 사업은 역사, 전승, 예술지, 전통, 풍물 등 우리의 다양한 문화원형을 주제별로 디지털화해 데이터베

이스로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것은 방대한 우리 문화원형을 체계적으로 정리한다는 의미와 아울러 게임이나 영화, 애니메이션 등의 문화산업 발전에 밑바탕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고려시대를 배경으로 게임이나 영화, 만화를 제작한다고 하자. 그렇다면 표현하고자 하는 시대의 의상이나 무기, 갑옷, 결투장면에 관한 자료를 구하기가 막막할 것이다. 설사 자료가 있더라도 뿔뿔이 흩어져 있는 박물관이나 고서점을 일일이 찾아다녀야 한다. 하지만 이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가 완성된 후에는 삼국시대면 삼국시대, 조선이면 조선, 우리가 알고자 하는 시대의 생활상을 비롯한 모든 것을 3차원으로 생생하게 살펴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지난달 17일 개관한 본교의 ‘디지털 아카이브

박물관’도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와 그 뿌리를 같이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용규(컴퓨터 멀티미디어공학) 교수는 “단순 관찰의 수준을 넘어서 우리 문화재의 보존과 복원에 기여할 것”이라며 “역사적으로나 학문적으로, 교육적으로 두루 귀중한 작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이버상에서 유물을 클릭하면 360° 어느 각도에서나 관찰이 가능한 본교의 사이버 박물관은 현재 본교 박물관이 소장 중인 불교 관련 유물을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또한 앞으로 전국 각지의 불교 문화재와 유물을 모아 꾸준히 3차원 입체 영상물로 제작할 예정이어서 불교문화 발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보인다.

‘역사는 현실을 반영하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다. 마치 뉘비우스의 떠처럼 과거와 현실은 결코 떨어뜨려 놓고 생각할 수 없다는 뜻이다.

얼마 전 본교에서 고려대장경을 한글대장경으로 완간하고 이를 또 다시 전산화한 적이 있다. 우리는 이러한 사례를 단순히 옛 것을 보존한다는 차원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 현실과 과거를 잇는 하나의 매개체로, 과거를 통해 현재와 미래의 문화를 함께 엮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원형 디지털콘텐츠화도 과거의 흔적을 좇는 일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되돌아보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우리 스스로가 우리 전통에 자부심을 느끼고, 애니메이션이나 게임, 영화 등 문화산업에 탄실한 기반을 마련해 세계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는 좋은 기회로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 클릭! bookers(www.bookers.co.kr)



출판업을 다루는 대부분의 인터넷 사이트는 책을 팔기 위한 상업적인 목적으로 만들어진 인터넷서점이다. 하지만 이에 반기를 들고 나온 사이트가 있으니 바로 출판문화원형 bookers(www.bookers.co.kr)이다.

bookers는 인터넷서점이 운영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와 출판에 대한 질 높고 빠른 정보를 무료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다른 출판원형과는 달리 음악, 예술, 영화에 이르기까지 문화 예술 전반을 아우르고 있다. 또한 매일 업데이트 되는 책 소개 코너는 보통의 책

소개 사이트들이 취하는 줄거리와 저자소개 방식에 그치지 않고 책과 관련된 기자의 경험이나 감상들을 자유롭게 풀어내 주목할 만하다. 특히 'thema scape'에서는 일정한 테마에 걸맞은 책을 선정 후 다양한 작업을 가진 필자들이 그 책과 연관된 삶 이야기를 들려준다. 얼마 전에는 영화칼럼리스트 최덕수 씨가 디즈니 애니메이션 '슈렉'의 주인공을 가상 인터뷰한 내용을 실어 네티즌들의 큰 호응을 얻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people'에서는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친일문인에 대한 전문가들의 대화의 장을 마련했으며 소설가, 인문학자 등 각계각층 사람들의 삶아가는 소식도 알 수 있다.

물론 필자의 직업에 따라 개인성향이 두드러져 글의 수준이 안정되지 못하고 네티즌들의 커뮤니티 공간이 마련되지 않았다는 단점도 있다. 그러나 출판계에 대한 빠르고 방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각계 인사의 독서취향을 엿볼 수 있는 재미까지 쏠쏠하다는 점에서 bookers는 인터넷 문화잡지로 충분히 자리 매김해나갈 수 있을것이라 기대한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 오델로 리뷰

## 사랑과 증오 야누스의 두얼굴

수세기 전에 창작되었지만 현재까지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예술작품들. 문학·연극·미술 등 문화 각 분야에서 이른바 '고전'이라 불리는 명작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 바로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 시대를 뛰어넘어 변함 없이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인 정서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이다.

고전이 지닌 함축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없이 언제나 사람들을 매혹시킨다. 또한 현대의 감각과 만나면 다채롭게 변주됨으로써 한층 더 깊은 의미를 갖기도 한다.

극단 동승무대(대표=임정혁)는 지난 10일까지 대학로 강강술래 극장에서 지난 98년 창단 공연이었던 창작극 '오델로-괴는 나지만 죽지 않는다(이하 오델로)'를 다시금 무대에 올렸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을 현대의 이야기로 새롭게 탄생시킨 것이다.

오델로는 연극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연극 속의 또다른 극중 오델로 역을 맡은 배우는 데스테모나 역을 맡은 배우와 실제로 사랑하는 연인 사이다. 둘은 나이 차와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결혼하지만, 여주인공을 사랑하는 극단 단원들이 이들을 시기하여 음모를 꾸민다. 남주인공에게 여주인공과 이하고 역을 맡은 남주배우 사이를 모함한 것이다. 계략에 넘어간 남주인공은 질투심에 눈이 먼 나머지 결



백지연 기자

### 현대양식과 고전가치의 만남 보편적 정서 담아내

국 오델로와 같은 심정이 되어 연극 리허설 도중 실제로 아내의 목을 졸라 죽이고 만다. 파국으로 치닫고 만 결말을 암시하듯 연극 속 현실과 극의 경계는 모호하다. 남주인공과 여주인공이 다루는가 싶으면 극중 상황이고, 극중 대사는 단원들의 심정을 토로하는 말이 되기도 한다.

또한 오델로 역을 맡은 배우와 연출자가 나누는 사랑의 균열과 파국에 대한 의미심장한 대화는 극 전반의 주제를 대변하며 복선의 역

할을 한다. 연극 오델로는 남주인공이 증오와 질투심으로 파멸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인간본성에 대한 쓰러린 통찰을 보여준다.

몇 백년 전에 창작·공연된 희곡임에도 우리에게 실득력을 가지고 다가오는 까닭은, 이러한 이야기가 현대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혹은 일어나고 있는 일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로써 관객은 연극을 보며 자신의 은밀한 내면 속 감춰진 욕망과 만나고, 삶의 궤적을 뒤 돌아 보게 된다.

고전의 가치를 현대적 양식으로 담아 인간의 보편적 내면세계를 표현한 연극 오델로. 간계에 넘어가 사랑이 증오로 바뀌는 순간 그 사랑을 죽이고 만 오델로는 우리 내면에 감춰진 애증의 어리석고 슬픈 자화상이 아닐까.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 문화단신

### 토요영화감상회

국립현대미술관이 매달 다양한 주제를 선정해 '토요영화감상회'를 개최한다. 미술관을 찾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무료상영 되는 이 영화제는 매주 토요일 오후 3시에 미술관 대강당에서 실시된다.

3월에는 '세계명작걸작'이라는 주제에 걸맞게 서스펜스의 거장 알프레드 히치콕의 대표작 '싸이코'를 비롯해 48회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5개 부문을 수상한 '빠꾸기 동지 위로 날아간 새' 등이 상영된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은 열린 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해 영화상영 이외에도 음악축제 등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마련 중이다.

### 2002 겨울의 노래편

국립국악원악단은 오는 15일부터 양일간 국립극장 해오름 극장에서 '2002 겨울의 노래편' 공연을 연다. 전통민요를 재해석해 무대화하고 새로운 겨울의 노래를 창작·보급하고자 기획된 '겨울의 노래편'은 올해로 세 번째를 맞아 보다 의미 있는 프로그램으로 짜여졌다.

1부 관현악의 향연을 시작으로 2부 노래야 나오너라, 3부 가무와 관악 '뚝돌놀이, 희망이 밝아온다'로 진행되며, 북한의 개량악기인 '장새남'도 선보일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예년과는 달리 가수 정태춘, 현영애와 몽골 인민가수 남달린 노랍반자드가 함께 해 더욱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다.

매체비평

방송 편 - 스카이라이프

디지털 위성방송 도입, 가치판단은 뒷전으로 밀려



다채널·쌍방향 서비스를 내세우는 디지털 위성방송 스카이라이프.

지난 1일 디지털 위성방송이 본 방송을 시작함에 따라 적도 상공의 3만5천800미터에 떠 있는 위성을 통해 깨끗한 품질의 방송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디지털 위성방송 실시에 따라 단기간으로 셋톱 박스 등 관련 장비의 수요증가가 예상되고 중장기적으로 HDTV, DVD 및 음향시스템, 콘텐츠 부문의 산업 발전이 예상된다.

그러나 지난달 28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가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채널을 KBS1, KBS로 국한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의결했고 27일 방송위원회가 위성방송의 MBC, SBS 재송신 불가 방침을 확정함에 따라 당분간 위 채널은 보지 못하게 됐다.

한국디지털위성방송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시민의 70%가 지상파 재송신이 금지될 경우 위성방송 수신을 포기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한국의 디지털 위성방송 자체 여론조사에 따르면 일반시민의 70%가 지상파 재송신이 금지될 경우 위성방송 수신을 포기할 것이라고 나타났다.

이외에 초기에 셋톱박스 공급물량이 6천 500대로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점도 부정적이다. 셋톱박스 수급 불균형 현상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임에 따라 신규 채널사용 사업자(PP)들이 잇따라 위성방송 프로그램 공급 시간을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비록 위성방송이 기술적으로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그것이 어떻게 운용되는가는 전적으로 사람들 손에 달려 있다. 따라서, 어떠한 기술을 도입하고자 할 때는 다양한 각도에서 심층적인 분석이 요구된다.

그러나, 현재 위성방송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해결해야 할 일들이 산적해 있다. 이 중에서도 셋톱 박스 부족의 문제는 철저한 시장 분석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현상들은 해당 매체의 장점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도입해야 한다는 당위성에서 비롯되었다.

왜 그것을 도입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가치 판단은 뒷전으로 밀리고 어떻게 해야만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만 무수하다.

뉴미디어를 도입하기 전에 한번쯤은 그것이 왜 우리에게 필요한가에 대한 점검과 현재의 미디어 환경에서 어떠한 장·단점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이호규 사회과학대 신문방송학과교수

'세계 여성의 날'이 지난 8일로 94주년을 맞았다. 이에 최근 방송, 대중가요, 미술사 등 우리 문화계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과 그 변화양상을 살펴보고 문화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알아본다. 편집자

날개 단 여성, 꿈을 향해 날자

방송 영상 속 여인천하

미모의 여성이 화려한 음악에 맞춰 거리를 걷는다. 그녀의 손은 무언가를 시원스레 탁, 탁 소리나게 때리고 있다. 그런데 그녀가 때리는 것은? 바로 남성의 영령이. '지갑 속에 딱 한 장'이라는 카피와 함께 얼마 전까지 TV에서 방영되었던 모카드 광고에 나타난 여성의 모습은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우리 영화사 속에서 5.60년대 여성의 전형은 '순종'과 '희생'이라는 두 가지 키워드로 대변된다. 이는 다시 '에로티시즘'으로 이어져 70년대 '영자의 전성시대'를 시작으로 호스티스 영화가 불을 일으키고, 80년대 군사정권하에서 검열이 완화되자 '애마부인' '뽕' '산딸기' 등 본격적으로 여성의 성을

가요 "난 여자야"

꼭 빼 입은 정장 스타일에 중절모까지, 무대에서 '난 남자야'라고 외치는 남장여자. 그는 다름 아니라 '하늘색 뽕'을 찾아 단발머리를 양친하게도 잘랐거던 소녀가수 박지윤이다. 하지만 그녀는 얼마 전 새 음반을 통해 '쓰레기 같은 남자'를 활안하며 자기 주장을 내세우는 당찬 여성으로 탈바꿈했다.

그동안 우리가 접해온 수많은 대중가요를 살펴보면 그런 그녀의 변신은 놀랍고도 색다르다. 왜일까. 왜 그녀의 변신이 주목받는 것일까.

노래방 애창곡으로 잘 알려진 '남자는 배 여자는 항구'나 '낭랑 18세'는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무의식적으로 왜곡된 여성상을 그리고 있었는지를 보여준다. 이 노래들에서 여성은 남자를 그리워하며 '하루하루 바다만 바라보다 눈물지으며 힘없이 돌아오'거나 '소쩍새 우는 앞개울에서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하는' 존재로 그려진다. 설운도의 '여자여자여자'에서는 남자 앞에서 '고개 숙여 우는', 그래서 한없이 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성을 바라보고 있다.

또한 과거 7,80년대 심수봉의 '여자인이까'부터 최근 그룹 키스의 노래 '나는 여자인이까'까지 대부분의 가요들은 여성을 사랑밖에 모른다고 정의 내려, 그저 남성에게 선택 당하는 수동적인 인물일 뿐이라고 역설하고 있다. 여자이기 때문에, 좋아하는 남자에게 먼저 말을 건넬 수도 없고 버림받고도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논리로 말이다.

하지만 최근 이정현을 비롯해 하늘, 김현정이 들고 온 여성파워 바람은 가요계에 만연해 있던 여성의 골레를 조금씩 변화시키고 있다. 먼저 조그만 몸집에서 뿜어져 나오는 카리스마로 남성들을 향해 자신을 '반만 믿고, 반만 닮아 보라'고 말하는 이정현. 다시 찾아온 남자친구를 '웃기게'라며 한마디로 일축시키는 하늘. 그리고 자신의 친구와 물대 만난 남자친구를 용서할 수 없다며 '놔'라고 거세게 뿌리치는 김현정까지. 모두 조금은 거친 댄스도 무난히 소화해내는 당당함으로 말이다.

대중가요는 사람들의 정서를 민감하게 포착해 낸다고 한다. 그래서 노래가사에는 한 문화의 정서가 고스란히 묻어난다. 그동안 가요가 여성을 수동적인 의미에서 '꽃'으로 비유했다면, 요즘 불고 있는 이러한 여성 바람은 사회 전반에 걸친 왜곡된 여성상을 올바르게 잡아줄 '밀거름'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성희 기자 mong2@dongguk.edu

상표화한 영화들이 쏟아져 나왔다. 드라마와 광고 역시 마찬가지로 여성은 항상 전업주부로,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에 아래 오직 남성만을 바라보며 순종하고 헌신하는 모습으로 그려졌다. 여성의 자아실현과 성공, 자유의지와 독립적 존재로서 주체성 등은 도외시되었고, 대신 남성의 시선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성적 매력을 상승시키고 미모를 가꿀 것만이 요구되었다.

이런 경향은 '처녀들의 저녁식사' '정사' 등의 영화에 여성의 성적욕구가 주체적으로 그려지면서 완화되는 듯 했지만, 90년대 대부분의 트렌디 드라마에서 전문직을 가졌음에도 일의 성공보다는 남성의 사랑을 위해 애쓰는 여성의 모습에서 여전히 계속 되기도 했다.

그러나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런 여성의 모습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다. 여성의 사회적 해방과 독립, 남성과의 동등성 등을 이야기한 '아름답' '여자만세' 등의 드라마가 큰 인기를 얻으면서 여성

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한 것이다.

이는 최근 '여인천하' '명성황후' 등에서 천하를 호령하는 카리스마 넘치는 여성과 '로펌' '그 여자네 집' 등에서 일과 성공을 중요시하는 유능한 캐리어우먼의 이미지로 이어지면서 매체가 반영하는 여성의 지위가 과거에 비해 현저하게 높아졌음을 시사한다. 현실사회 속에서 여성이 부딪치는 문제점은 아직도 곳곳에 산재해 있지만, 영상매체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화가 현실 속 여성의 위치변화로 이어지는 발판이 되길 기대해본다.

이수경 기자 papaya@dongguk.edu

미술 화폭에 핀 자유의 꽃

밀레의 '이삭줍기'에 나오는 고개 숙인 여인네들이 바구니를 내팽개치고 고개를 든 채 당신을 노려본다면? 요즘 미대생들 사이에서는 이처럼 서양 화가들의 명화를 패러디 하는 것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패러디의 대상은 명화 속에 등장하는 여성으로 대부분 집안일을 하는 소시민이나 창부이다. 하지만 여성의 모습은 패러디 미술이 아닌 실제 미술에서도 변화해왔다.

이화여대 박물관에서 지난 8일부터 '또 다른 미술사: 여성성의 재현전'을 통해 미술사에 나타난 여성상의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전시회의 특이한 점은 전시관을 회화 중심의 '여성의 이미지와 공간'과 공예중심의 '여성적 소재와 기법'으로 나누어 보다 다양한 시각에서 여성을 바라보도록 했다는 것이다.

먼저 '여성의 이미지와 공간' 전시관은 입구에서 출구로 갈수록 여성의 모습이 현대적으로 변모한다. 입구 옆에 위치한 최우석의 '여인상'이 국화꽃 한송이를 손에 든 채 정자세로 의자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여성을 그린 반면, 전시관 후반에 있는 이유태의 '탐구'는 과학 실험실에서 연구원 가운을 입은 지적인 여성을 주인공으로 하고 있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데 이 작품은 이전 그림들과는 달리 다리를 꼬고 앉아 종아리까지 흰치 드러내놓고 있는 여성을 그려 남성들이 지배하는 공적·사회적 공간에서 배제된 수동적인 모습에서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모습으로 변화하는 여성을 보여주고자 한 것이다.

그리고 '여성적 소재와 기법' 전시관에서는 과거 여성성의 상징이라 인식됐던 바늘과 실, 그릇 등을 형상화한 작품들을 만날 수 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보따리에 싸인 책을 표현한 강애란의 작품으로, 교육이 남성의 전유물이었던 시대에 책을 보따리에 감추고 다닐 수밖에 없었던 여성들의 아픈 기억을 그대로 담았다.

이와 관련해 이화여대 박물관 연구원 장남원 씨는 "전시회를 통해 여성지위의 변천사를 엿볼 수 있을 것"이라며 "21세기 화폭에 그려질 모습은 바로 현재의 여성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라고 전시회의 기획의도를 밝혔다.

현재 여성의 사회적 지위는 과거에 비해 향상되었지만 아직까지 능력이 같은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때문에 이러한 전시회가 열린다는 것 자체가 현재 여성이 아직 완전한 주류가 아님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여성이 우리사회에서 진정한 주류로 자리잡기 위해서는 수동적이고 나약한 것의 상징이자, 무형의 족쇄였던 고루한 '여성성'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김하나 기자 sellyone@dongguk.edu

메아리

판단부재

▲모든 국가의 정부에는 장관이 있다. 장관직은 나라와 국민을 대표하는 위치로, 그 책임이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 정부의 출범 이후 많은 장관 교체가 이뤄졌다. 그만큼 각 장관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했다는 소리다. 그런데 이러한 잦은 장관 교체 속에서 최장수 장관직을 맡고 있는 사람이 김명자 환경부 장관이다. 국민들은 이러한 환경부를 가장 안정되고 역할을 충

실히 수행하는 부처로 인식하고 있다.

▲겨울철이 되면 일정 구역 도마다 돌아가면서 수렵을 허용하는 순환수렵제도가 있다. 녹색연합에서 이러한 순환수렵제를 조사한 결과 멸종위기에 처해 있거나 법적인 보호를 요구하는 동물들의 주요 서식지까지 합법적인 사냥가능지역으로 되어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렇게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순환수

렵제도를 환경부에서 허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환경부는 국립공원을 제외한 주요 생태축을 모두 사냥터로 풀어주었는가 하면 산림청이 산림법 상 가장 강력히 관리하고 있는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지역도 사냥터로 풀어주었다. 당초 산림청에서 맡아온 순환수렵제도를 환경부에서 담당하게 된 명분은 산림청이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환경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하지만 환경부는 막상 관리권이 넘어온 뒤로 환경단체의 지적은 고사하고 조직 내의 전문가가 지적하는 의견조차 무시하기 일쑤였다.

▲결국 최장수 장관을 보유하고 있는 환경부의 환경관리는 잠시 거쳐간 장관 때와 별반 다른 점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야생 동물 보호의 경우, 산림청으로부터 업무를 가져가 한 일은 겨울철 밀렵 단속 밖에 없는 것으로 드러나 오히

려 산림청이 관리할 때 보다 후퇴하고 있다. 환경부는 앞으로 검토를 통해 순환수렵제를 개선하겠다는 의사를 보이고 있으나 그 이전에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환경 단체나 생태전문가의 의견에 가장 먼저 귀기울이는 환경부가 되지 않는 한 우리나라 환경 관리의 미래는 없을 것이다.

형진우 편집부장 premier@mail.dongguk.ac.kr